

패션비즈니스 제28권 3호

ISSN 1229-3350(Print)
ISSN 2288-1867(Online)

J. fash. bus. Vol. 28,
No. 3:1-15, July. 2024
[https://doi.org/
10.12940/jfb.2024.28.3.1](https://doi.org/10.12940/jfb.2024.28.3.1)

Corresponding author

Soojeong Bae
Tel : +82-62-530-1344
Fax : +82-62-530-1349
E-mail : sjbae@jnu.ac.kr

크리스토퍼 네메스의 디자인 방법을 활용한 해체적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개발

문효준* · 백정현 · 배수정+

*JR인터네셔널, 대표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Development of Deconstructive Upcycling Fashion Design Using the Design Method of Christopher Nemeth

Hyojoon Moon* · Jeonghyun Baek · Soojeong Baet

*Representative, JRinternational, Korea
Instructor, Dept. of Clothing&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fessor, Dept. of Clothing&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Keywords

Christopher Nemeth,
upcycling fashion,
deconstructive upcycling
크리스토퍼 네메스,
업사이클링 패션,
해체적 업사이클링

Abstract

Christopher Nemeth is a designer who combines characteristics of a pioneering upcycle design and deconstructionist design with fabrics, waste clothing, and pieces of fabric recycled in the 1980s. By hommaging his work from the Louis Vuitton 2015 F/W collection, Kim Jones is once again becoming a source of design inspiration in an era where upcycling fashion is attracting attention. Accordingly, an upcycling design approach might appeal to the MZ generation. Christopher Nemes' design presented in this study as a representative fashion designer of dismantling upcycling is basically based on dismantling. It can also be interpreted as dismantling upcycling design because it uses used clothing, waste clothing, and discarded fabrics as materials. This study examined main techniques of upcycling fashion design and derived characteristics of Nemes design as "deconstructive techniques using free lines of construction," "recycling upcycling vintage materials and clothing accessories," and "using handcrafted techniques of artistic sensibility." By applying Nemes' dismantling upcycling technique, four designs were developed for men's top and bottom sets for targets in their 20s and 30s to suggest the commercialization possibil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poses a methodical alternative to the new deconstructionist upcycling design that can show Nemes' aesthetic characteristics, creative perspective, and personality by modernly reinterpreting the deconstructionist upcycling technique extracted through analysis of fashion designer Christopher Nemes' design. In particular, by actually producing the work and confirming whether the design technique can be implemented, the value as a fashion product that can be sold is realized.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지속가능한 패션의 일종인 업사이클링 패션(up-cycling fashion), 비건 패션(vegan fashion),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등이 부상하는 배경에는 가치소비를 중요시하는 MZ 세대의 특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래패션의 핵심소비자층인 MZ세대는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이 반영된 소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기에 '지속가능성의 가치'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을 보인다(Lee, 2016). 때문에 지속가능한 패션브랜드의 제품개발 또한 MZ에 소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독창적인 디자인과 신소재를 개발하는 창의적 디자인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의 업사이클링 패션은 단순히 환경적 의미로 접근되었으나 점차 소비자의 다감각적인 취향과 욕구가 반영되고 있는 추세이며, 디자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법의 하나로 해체주의가 새롭게 제시되고 있어 업사이클링 디자인의 영역을 확대시키며 개성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Wu, 2021).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자체가 의복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기에 '해체'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Heo, 2020), 최근 패션 브랜드들도 해체적 관점이 반영된 디자인 기법을 업사이클링 디자인에 활용하는 '해체적 업사이클링(deconstructive up-cycling)' 표현방식에 대한 시도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크리스토퍼 네메스(Christopher Luis Nemeth, 1959~2010)는 이미 1980년대에 재활용된 직물과 폐의류를 디자인에 활용하여 재단 후 버려지는 원단 조각들로 업사이클 디자인과 해체주의 디자인의 특성이 접목된 당시로는 선구적인 스타일을 제시한 디자이너이다(Moon, Jung, & Bae, 2021). 남성복 디자이너 킴 존스(Kim Jones, 1979~)가 루이 비통(Louis Vuitton) 2015 F/W 컬렉션에서 그의 작품을 오마주(hommage)함으로써 업사이클링 패션이 주목받는 시대에 다시금 디자인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고, 개성적인 디자인을 지향하는 MZ세대에 어필 가능한 업사이클링 디자인 접근방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어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해체주의 패션'의 개념이 접목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과 '크리스토퍼 네메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체주의 패션과 업사이클링 패션

과의 연계성을 고찰한 연구로 Jeon and Park(2021)은 해체주의 특성에 부합되는 업사이클링의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Heo(2020)는 해체주의의(삭제) 발상기법과 표현기법을 분석하여 업사이클링 셔츠 디자인에 적용시켰고, Na, Kim and Lee(2024)는 해체적 업사이클링 패션을 도상해석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해체주의 패션과 업사이클링 패션과의 연계성을 표현한 디자이너로 마틴 마르지엘라(Maison Margiela)(Wu, 2021), 자크뮈스(Jacquemus)(Kim & Ha, 2016), 베트멍(Vetements)(Kim & Park, 2022)이 주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루어진 바 없으나 폐의류와 직물들을 재활용하는 방법적 측면과 해체주의 패션디자인의 내용적 측면을 보여주었던 크리스토퍼 네메스의 디자인을 제시하고 분석하여 그 디자인 방법을 활용한 해체적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해체적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네메스의 디자인 방법은 기존 폐의류의 재료 일부를 사용하는 업사이클링 디자인 뿐만 아니라 남은 자투리 원단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도 동시에 실천할 수 있으며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디자인적 한계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어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며, 기존 업사이클링 패션에 새로운 시각과 개성을 부여한 제품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물 제작을 병행하였는데, 문헌연구는 디자이너 네메스 관련 서적, 단행본, 잡지 및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정리하였다. 크리스토퍼 네메스의 디자인 분석을 위해서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일본 패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패션 브랜드를 기록한 'Japanese Fashion Archive'(<https://japanese-fashionarchive.com>)와 뉴욕의 빈티지 쇼핑몰 'About Glamour'(<https://aboutglamour.storenvy.com>), 공식 홈페이지(<https://christophermeth.com>)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디자인을 활동 시기에 따라 예술가에서 패션디자이너로 전환한 1980년대 초반의 초창기, 활발한 활동을 하였던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의 전성기, 그리고 사후 가족들에 의해 그의 작품이 유지되고 있는 2010년 사망 이후의 유지기의 3단계로 분류하여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의 추출은 행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대상을 제외하고 활동 시기에 따라 초창기 7점, 전성기 15점, 유지기 42점의 총 64점을 분석 대상으로 추출하고 연구자를 제외한 패션디

자인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명이 함께 분석에 참여하였다. 분석에서는 의상의 구성, 소재, 기법의 측면에서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과 접목되는 네메스의 디자인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표현기법들을 중심으로 20-30대 남성을 타겟으로 한 상·하의 세트 총 4벌의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II. 해체적 업사이클링 패션의 특성

1. 해체주의 패션

1966년 미국의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대학에서 열린 '비평의 언어와 인문과학(The Language of Criticism in the Science of Man)'의 주제로 국전심포지엄에서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인문학의 예술 행위에 있어서의 구조와 기호, 그리고 유희(Structure, Sing and Plat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해체주의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었다(Yang & Park, 2008).

데리다 해체주의의 주요 특성으로는 차연(Différance),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의미의 불확정성(Intermeaning of Meaning), Dis-De 탈현상(Dis-De Phenomenon), 탈중심성(Desentrining)을 제시할 수 있다(Yang & Park, 2008).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해체주의 패션디자인은 전통적인 기준이나 관습을 거부하고 구조주의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규칙을 파괴하는 전환적 발상과 재구성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미감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차연은 미래와 과거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흔적으로(Kim, 2001), 단순한 재현이 아닌 본래의 것과 차이(difference)를 만들어 낸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Lim & Choi, 2005). 즉 이미 만들어진 것을 배경으로 현재의 것과 조합하여 새롭지만 낯설지 않은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이는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재해석 되지만 과거의 의미를 계승해 나가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에 레트로 룩이나 빈티지 룩, 리사이클 룩 등으로 패션에 표현되었다(Jeon & Park, 2021).

상호텍스트성은 경계의 존재를 해체하여 서로의 흔적을 받아들이는 개념으로 패션에서는 기존의 형태나 위치 기능의 경계를 허물어 성의 혼합, 상반된 이미지의 혼합, 이질적 소재 병행, 속옷의 겹옷화 등의 다해석적 표현으로 나타났다(Jeon & Park, 2021).

의미의 불확정성은 모든 개념에 대한 체계를 해체하고 다

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패션에서는 독창적인 조형 감각의 표현과 불확실한 착장법으로 형태나 형식을 미리 정하지 않고 착용자에 의해 완성되는 가변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무형식의 형태는 유연성, 열린 개념에 의한 미완성의 미학으로서 자유로운 정신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관점에서 재구성됨으로써 우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Jeon & Park, 2021).

Dis-De 탈현상은 형태와 기존의 구성방식을 파괴하여 조형의 개념을 해체하고, 가치가 없고 소외된 것들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일체의 중심주의를 해체한 개념이다. 패션에서는 비대칭, 구멍 뚫기 등의 기법을 통해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는 변형 및 해체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준다(Jeon & Park, 2021).

탈중심성은 외부로부터의 파괴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들을 해체하여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상태를 그대로 포용하고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는 것으로(Dokgo, 2009), 패션에서는 비주류 문화와 하위문화의 재조합을 기본 구조로 키치, 스트리트 패션, 글램룩, 과장된 실루엣 등으로 표현되었다.

패션 분야에서 '해체주의'라는 용어는 1989년 디테일즈(Details)라는 잡지의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에 의해서 처음 사용하게 되었고 19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이념 안에서 사회의 폐쇄성과 획일성, 몰개성에 대한 회의감이 논의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Shin & Lee, 2020). 주요 디자이너로는 마틴 마르지엘라,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레이 가와쿠보(Kawakubo Rei)와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등을 꼽을 수 있으며(Moon et al., 2021), 최근에는 마르케스 알메이다(Marques' Almeida), 와이 프로젝트(Y-Project), 자크뮈스, 베트명 등의 밀레니얼 세대 디자이너들이 이끄는 브랜드로 이어지면서 MZ세대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Lee, 2016).

2. 해체적 업사이클링 패션

해체주의 패션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동시대 사회 문화의 영향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의복의 관념 거부, 전통적 가치관의 재해석이 주요 개념으로 작용했으나 점차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 젠더, 착장의 T·P·O 등에 있어 명확한 구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탈경계 현상으로 표현되었고(Shin & Lee, 2020),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이슈로 인해 기존의 의복을 재사용하면서 이를 해체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조합되는 해체적 업사이클링 패션의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는 데리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해체주의 패션이 해체적 업사이클링 패션으로 진화하면서 기존의 소재나 의복을 다시금 재활용한다는 의미가 핵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체주의의 내재적 의미보다는 조형성을 표현하기 위한 요소인 구성, 소재, 기법에 대한 적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해체주의적 패션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해체적 관점에서 분석한 업사이클링 패션의 특성을 바탕으로, 의복의 구성, 소재, 기법적 측면에서 해체적 업사이클링 패션의 특성을 ‘구성적 해체’, ‘소재의 해체’, ‘기법의 해체’의 세 가지 유형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구성적 해체’는 기존의 전형적이고 안정적인 의복의 형태를 믹스 앤 매치, 해체, 변형, 혼합, 중첩, 회전, 레이어링 등의 기법을 통해 재구성하는 것으로 해체주의의 상호텍스트성, 의미의 불정확성, Dis·Da 탈현상의 개념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 의복의 착장법, 기능성, 젠더를 해체하고 비대칭, 과장, 유희적 효과 등이 발현됨으로써 의외성과 창의적 조형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소재의 해체’는 기존에는 의복에 사용되지 않았던 소재를 과감히 사용함으로써 기존 소재 사용법 및 패션 소재의 범위를 변형 및 해체하는 것으로,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중차연, 의미의 불정확성의 개념이 반영되었으며 재조합에 의한 우연적인 조형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업사이클링

패션은 기존에 효용성이 없어진 폐소재를 재사용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자 방법이기에 때문에 소재의 재사용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해체적 업사이클링 패션에서 소재의 해체는 기존의 재사용에서 한 단계 나아가 기존의 관습적 사용법을 해체함으로써 소재를 하나의 조형적 요소처럼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를 통해 착장의 T·P·O 및 하이패션과 스트리트패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기법의 해체’는 의복구성 시 부분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던 바느질법이나 장식법 등이 쓰이는 부위나 소재의 활용범위를 탈피하거나 다른 예술 장르인 회화에서 쓰이던 페인팅 기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체주의의 개념 중에서 의미의 불정확성, 탈중심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예술 장르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표현의 경계를 넓힘으로써 보다 희소성 있고 예술성이 강조된 새로운 조형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해체적 업사이클링의 대표적인 패션디자이너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네메스의 디자인은 해체주의에 근거하고 있지만, 재료 사용에 있어서 중고의류나 폐의류 및 버려지는 원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파생되어 나온 단추, 안감, 모피 등의 부자재도 버리지 않고 디자인에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더한 패턴 구성 및 수공예적 기법을 추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Upcycling Fashion from a Deconstructive Perspective in Previous Studies

Author (year)	Subject	Content
Jeon, Y., & Park, S. (2021)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upcycling fashion from the deconstructivism perspective.	-Deconstruction of meaning through material transformation -Deconstruction of form through deviation from composition -Deconstruction of boundaries through image borrowing
Na, M., & Kim, J. (2024)	An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Maison Margiela's deconstructive upcycling fashion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iconological interpretation.	-New beginnings through past culled objects -The unique aesthetic value and authenticity revealed in the mixture of excessive consumerism -Creativity through the fusion of times and cultures -Recombination of space-time
Kim, S., & Ha, J. (2016)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Vetements and Marques' Almeida, Jacquemus from the aesthetic values of neo-deconstructive fashion.	-Deconstruction of gender boundary -Individual personality -Deconstruction of clothing structure and design principle
Kim, J., & Park, E. (2022)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Vetements and Marques' Almeida from the perspective of neo-deconstructive fashion.	-The pursuit of heterogeneous newness -Contemporary diversity acceptance -Playfulness -Respect for an individual's personality

III. 크리스토퍼 네메스의 디자인 특성

1. 크리스토퍼 네메스의 작품세계

1980년대와 1990년대 활동한 영국 출신의 예술가이자 디자이너인 크리스토퍼 네메스는 1959년 영국 버밍엄(Birmingham) 출생으로,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캄버웰 미술대학(Camberwell College of Arts)에서 순수회화를 전공하였다. 초기에는 해체된 낡은 옷을 캔버스에 사용하여 풀과 모래를 붙이고 페인팅하는 방식의 작품을 선보이다가, 대학 졸업 후 작품이 팔리지 않자 옷을 살 돈조차 벌지 못하였고, 마음에 드는 옷을 살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자신의 작품이 그려진 캔버스를 비롯한 폐기된 의류로 자신이 착용할 의복을 제작하였다. 그의 패션디자인 작업은 닳고 낡은 한 벌의 의복을 분해하여 조각을 이은 바지를 제작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회화에 사용한 기법을 자신이 착용하는 의복에도 활용함으로써 의복임과 동시에 작품이 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작업방법을 고안하였다.

이후 네메스는 1985년 런던에서 첫 컬렉션 'ancient briton'을 발표하였고, 1993년부터는 섹터 부티크를 인수하여 'Christopher Nemeth'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브랜드명을 변경하고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에 분점을 열기도 하였다. 특히 1994년 12월에 'hard work' 컬렉션을 도쿄에서 재활용 직물과 재단 후 버려지는 원단 조각, 단추 등의 부속품을 활용하여 그래픽적인 바늘 문양을 발표하면서 점차 일본에서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다(Figure 1). 1980년대 일본은 풍요로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존의 기성복에 실증을 느낀 소비자들이 개성 있는 디자인에 관심을 돌리고 있을 때였기에, 해체주의와 업사이클 패션을 융합한 그의 스타일은 신선한 디자인으로 받아들여졌다.

1980년대 네메스의 초창기 작업들을 보면 의류수거함에서 가져온 낡은 옷감이나 의류를 캔버스 삼아 추상적인 선과 면을 그려 넣은 것이 대부분이었기에, 의상 자체가 하나의 업사이클링 아트 작품으로 제시될 수 있다. 1980년대는 업사이클링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기였기에 그의 의상은 하위문화의 하나인 스트리트 패션으로 분류되었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업사이클의 방법에 부합한다고 보여진다. 공식적으로 '업사이클링'이라는 용어는 1994년 독일기업 필츠주식회사(Pilz GmbH)의 라이너 필츠(Reiner Pilz)가 월간지 '살보(Salvo)'와의 유럽의 쓰레기 처분공정 시스템에 대한 인터뷰에서 처음 사용한 것에서 시작되었다(Park & Kim, 2016). 또한 최초의 업사이클 브랜드

는 1993년 그래픽 디자이너인 마르쿠스와 다니엘 프라이탁(Markus & Daniel Freitag) 형제에 의해 탄생된 스위스 가방 브랜드 프라이탁(Freitag)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당시 영국에서 사용하던 낡은 린넨 우편자루나 중고의류를 재료로 활용하여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그만의 방식으로 해체주의 미학을 표현한 그의 해체와 재건의 방식은 프라이탁보다 앞선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1년부터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에서 남성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는 킴 존스(Kim Jones)는 네메스의 시그니처 패턴인 그래픽적 바늘 문양을 2015 F/W 남성복 컬렉션에 활용함으로써 네메스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였다. 그는 네메스를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와 더불어 영국 출신의 가장 뛰어난 디자이너라고 평가하였는데, 특히 루이비통의 2015 F/W 남성복 컬렉션의 인터뷰에서 "네메스의 디자인은 런던을 정의한다. 네메스는 훌륭한 예술가로 훈련을 받았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션계에 입문했는데, 그것이 제가 시작한 방법과 일치한다. 많은 컬렉션에서 그의 작업의 영향을 볼 수 있지만, 아직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네메스의 서거 5주기를 맞이하여 이번 시즌 루이비통에서 그의 삶과 작품을 공개적으로 기념하고 싶었다." 라고 인터뷰한 바 있다(Lorelei, 2015). 킴 존스는 네메스의 작업 중에서도 섬세하며 추상적인 바늘 프린트를 주된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했고, 고급스러운 앙고라 니트, 캐시미어 더플코트, 모노그램 프린트 가방, 럭셔리한 시계 디자인으로 그를 오마주하였다(Figure 2).

비록 크리스토퍼 네메스는 2010년 사망하였지만, 이후에도 가족들이 일본 오모테산도(表参道)의 매장에서 그의 디자인 철학을 계승하고 있으며, 프리미티브(primitive)라는 공간은 런던의 젊은 디자이너와 예술가를 육성하는 장소로 운영되고 있다.

2. 해체적 업사이클링의 관점에서 본 크리스토퍼 네메스의 디자인 특성

크리스토퍼 네메스 작품활동의 초창기라 할 수 있는 1980년대 초반에는 주로 낡은 폐의류를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으며, 앞판은 블레이저 재킷에서, 뒤판은 블루종에서 가져온 바디스를 이어 앞뒤의 스타일이 다른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는 해체적 방법을 통해 아이템의 구성적 요소들을 분해하고 다시 재배치함으로써 의상의 형태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Figure 3). 그의 전성기



Figure 1. *Nemeth' Patchwork and a Button-decorated Jacket*
(<https://blog.naver.com/vhtm4730/222215510579>)



Figure 2. *Kim Jones 2015 F/W Louis Vuitton Men's collection*
(www.vogue.com)



Figure 3. *Mohair Jacket with Non-matching Found Buttons, 1980s or 1990s*
(<https://japanesefashionarchive.tumblr.com>)



Figure 4. *Embroidered Jacket and Fringe Pants, 1980s or 1990s*
(<https://japanesefashionarchive.tumblr.com>)

라 할 수 있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는 보다 디테일하고 장식적인 측면들이 가미되었는데, 스티치를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하거나 빈티지한 느낌을 자아내는 프린지나 시그니처 문양인 밧줄 문양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여 보다 과감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완성하였다(Figure 4, Figure 5). 그의 딸인 이요 네메스(Riyo Nemeth)에 의해 이어지고 있는 유지기의 스타일은 전체적인 구성은 네메스가 활동했던 시기에 비해 모던하고 심플해졌으나 해체적 구성선들과 스티치, 밧줄 문양 등 네메스만의 특징적 요소들은 계승되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시된 의복의 구성, 소재, 기법적 측면에서 도

출된 해체적 업사이클링 패션의 세 가지 특성인 '구성의 해체', '소재의 해체', '기법의 해체'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구성의 해체'는 거의 모든 작품에서 보여지고 있었으며, '소재의 해체'는 보다 상업적이고 모던한 스타일로 제시되고 있는 유지기 보다는 초창기와 전성기에 집중적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법의 해체'는 주로 디테일의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의복의 부분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중심적이었기에 다양한 디테일은 보이지 않았던 반면, 전성기에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폐의류 부속품을 재활용하였기에 부속품의 컬러와 크기 등이 일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형태로 풍부한 디테일을 보여 주었다



Figure 5. Rope Pattern Three Piece Linen Suit, 1980s-1990s
(<https://japanesefashionarchive.tumblr.com>)



Figure 6. Wooden Buttons and String Details
(<https://alchetron.com/Christopher-Nemeth>)

가, 디자이너 사후인 유지기에는 웨어러블하고 상업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유로운 디테일은 줄어들었으나 네메스의 상징적인 기법들은 유지하는 형태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자유로운 구성선을 활용한 해체적 기법

네메스의 디자인 특성 중 '자유로운 구성선을 활용한 해체적 기법'은 의복의 구성선을 해체함으로써 기존 의복구성의 전형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구성선으로 재구성하는 하는 것으로, 해체적 업사이클링 패션에서 사용되는 믹스앤 매치, 해체, 변형, 혼합, 중첩, 회전, 레이어링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아방가르드하면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표현하고 있었다.

특히 그의 대표적 아이템인 재킷은 한정된 크기의 소재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주로 짧은 길이에 여러 조각을 이어 붙인 소매패턴을 보여주는 넉넉한 벌크 실루엣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Figure 3은 레글런 칼라와 소매의 색상과 소재를 다르게 구성한 모헤어 재킷으로, 왼쪽 몸판과 오른쪽 소매의 시점을 밖으로 처리하였고, 이 부분에 오렌지색 레터링을 장식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네메스 작품의 하의는 주로 무릎 밑이나 종아리 길이고, 실루엣은 허리에서 무릎까지 폭이 좁아지다가 무릎 아래부터는 다시 폭이 넓어지는 실루엣과 엉덩이부터 폭이 점점 좁아지는 테이퍼드 실루엣의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바지 또한 소매처럼 패턴을 여러 조각으로 구성하여 업사이클링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동시에 입체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바지의 구성선은 기존의 바지 구성선과 전혀 다른 패턴

으로 입체감을 형성하여 네메스 특유의 구성적 해체를 보여 준다. 또한 원단과 대조되는 색으로 오버룩 처리한 시점을 밖으로 노출하여 절개선을 강조하거나, 데님 소재의 시점을 마감처리 하지 않고 울을 거칠게 풀어 밖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소재의 특성을 활용한 미완성의 마무리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2) 빈티지 소재와 의류 부속품의 재활용

기존의 소재를 해체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은 빈티지 업사이클링의 가장 주요한 특성이지만, 네메스는 특히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풍부한 표현력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느낌의 디자인을 선보였다. 그는 주로 자투리 소재들을 패치 워크, 턱, 셔링, 슬래쉬 등을 통해 소재 자체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고, 더불어 해체 후 남게 된 단추, 모피, 안감 등의 다양한 부속품을 광범위하게 여러 위치에 재사용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가변성의 재미를 주는 창의적 요소로 활용하였다. 사례로 Figure 6의 재킷에는 나무 단추와 함께 굵은 마 끈과 얇은 실을 트리밍한 단추를 제작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존에는 그냥 버려지던 의류 부속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링 빈티지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3) 예술적 감성의 수공예적 기법

크리스토퍼 네메스의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기법의 해체는 주름잡기, 뚫기, 풀기 등의 제작방법을 활용한 프린지, 페인팅, 자수, 스티치 등을 의도적으로 밖으로 드러내거나 원단과 대조되는 컬러를 사용하는 등 기존의 의복구성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시도를 적용시켰다. 이러한



Figure 7. Handcrafted Stitch
(<https://blog.naver.com/vhtm4730/222215510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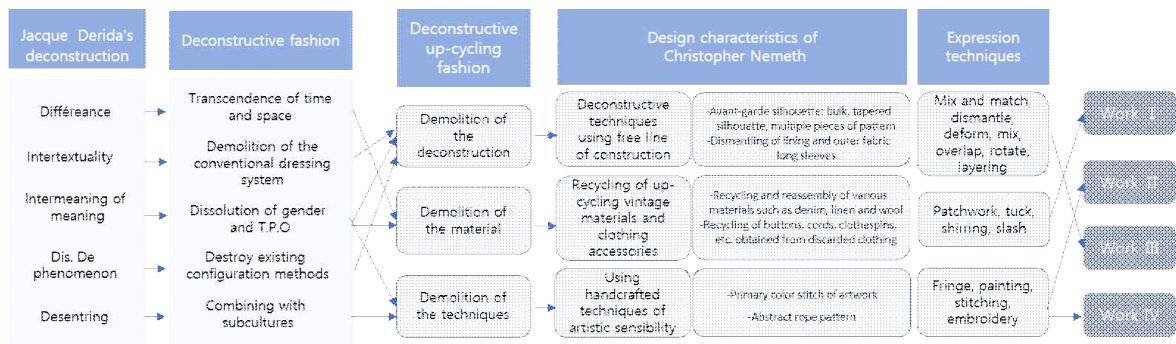


Figure 8. Characterization of Christopher Nemeth Design from a Deconstructural Upcycling Fashion Perspective (drawn by author)

예로 Figure 7의 스티치는 손이 가는 대로 자유로워 보이지만 수공예적으로 정교하게 처리되었기에 예술가이면서 디자이너인 그의 예술적 감성을 잘 표현한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바지의 무릎 부분에 반복 사용되어 마치 문양과 같은 효과를 주고 있다. 네메스를 대표하는 문양이라고 할 수 있는 밧줄 문양 또한 그의 회화성을 디자인에 접목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Figure 4에 제시된 길이가 짧은 상의의 뒷판은 한 장의 돌면 슬리브로 재단된 반면 앞판은 레글런 슬리브로 재단되는 독특한 구성선을 보여주며, 등에 'embroidered' 라는 단어의 자수 장식 레터링의 끝부분을 풀어서 포인트를 주었다. 하의는 프렌치 장식된 데님팬츠로, 끝 부분에 올 풀림을 활용한 트리밍으로 마감하여 통일감을 주었다(Moon et al., 2021).

이와 같이 해체주의 패션에서 영향을 받은 해체적 업사이

클링 패션의 관점에서 도출한 크리스토퍼 네메스의 디자인 특성과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디자인 개발의 Figure 8에 정리하였다.

IV. 크리스토퍼 네메스의 디자인 방법을 활용한 해체적 업사이클링 디자인 개발

1. 디자인 컨셉

패션 업사이클링이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한 후 실험적 디자인의 업사이클링 패션제품이 대거 출시되고 있으나, 조형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기능적인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에 업사이클링 패션의 주요 소비자인 MZ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크리스토퍼 네메스의 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환경적인 측면과 소비자들의 개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작품성과 실생활에서 무리 없이 착용 가능한 상품성을 동시에 갖춘 동시대적이며 차별화된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20-30대 남성 중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신의 개성이 뚜렷한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윤리적 소비자를 타겟으로 설정하였다.

3장에서 분석한 해체적 업사이클링 디자인의 관점에서 네메스의 디자인 특성으로 도출된 해체적 구성선, 빈티지 소재와 의류 부속품의 재활용, 예술적 감성의 수공예적 기법을 바탕으로, Figure 8에서 제시된 것처럼 셔링, 프린지, 오버랩, 페인팅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제작에 사용된 폐 의류와 원부자재들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 착용하지 않고 보관되고 있었던 본 연구자의 소장 의류들과 유행이 지나 입지 않는 의류, 색이 바라거나 낡고 구멍난 의류, 오염된 의류, 형태 손상 등의 이유로 옷장에 묵혀 두었던 폐 의류, 구제시장에서 구입한 빈티지 의류, 작업을 하다 남은 자투리 원단과 부자재, 시즌이 지나 판매되지 않은 재고 의류 및 원단을 수집하고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2. 작품제작

1) 작품 I

작품 I은 네메스 디자인의 특성 중 기법의 해체를 적용시켜 크리스토퍼 네메스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셔링을 주제로 소재를 변형하고 빈티지 단추 등을 활용하여, 재구성된 빈티지 소재와 단추와 같은 의류 부속품을 재활용하였던 네메스의 디자인 특성을 적용시켰다.

상의인 테일러드 재킷은 오버사이즈 재킷과 3차원 실루엣, 빈티지 단추와 셔링, 라이브 엷지를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 전체적으로 신체선을 따르는 오버사이즈 형태로 어깨 선부터 험라인까지 불규칙하게 셔링을 잡아 입체감을 주었고, 테일러드 칼라 부분에 다양한 빈티지 단추를 불규칙하게 장식하여 빈티지함을 표현하였다.

팬츠는 입체적 셔링, 라이브 엷지를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는데, 재킷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신체의 곡선을 따라 여유있게 재단하였고 바지의 옆선에 셔링 장식을 넣어 입체적인 효과를 주었다. 디테일 측면에서는 팬츠의 옆선 디테일을 염색 후 락스로 탈색하여 빈티지한 느낌을 주려고 했으며, 팬츠의 컬러와 보색대비를 이루는 다크 블루 컬러의 데님을 허리밴드에 매치시켜 소재와 색의 믹스매치 효과를 의도하였고 이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2) 작품 II

작품 II는 해체적 업사이클링 패션의 특성 중 기법의 해체를 활용한 것으로, 예술적 감성의 수공예적 기법의 한 종류인 프린지를 모티브로 기존 폐 소재의 겉과 안을 함께 활용한 점퍼와 팬츠로 구성하였다. 겉과 안이 뒤집힌 듯한 봄버 점퍼는 안감과 겉감의 해체 및 재조합, 서로 다른 소재의 믹스매치, 굵은 마 끈과 여러 겹의 가는 색실을 이용한 프린지, 빈티지 단추와 라이브 엷지를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

상의는 볼륨감이 있고 길이가 짧은 네메스의 시그니처 재킷 라인을 응용하였으며, 자투리 코듀로이와 비스코스 레이온을 겉감으로 활용하여 마치 점퍼를 해체하여 재구성한 듯한 디자인으로 해체주의 패션을 표현하였다. 점퍼의 우측 상단에는 빈티지 단추와 자투리 실 등으로 제작한 프린지를 트리밍 장식하였고, 레이온 원단을 험라인에 레이어링하여 프린지와 같은 효과를 주었다.

팬츠의 허리밴드에서 엉덩이 방향으로 날카로운 기하학적 선을 흰색 실로 스티치 장식하였고, 스티치 부위의 실 역시 프린지처럼 늘어지게 처리하여 통일감을 주었다. 뒷 포켓에도 스티치 부위에 얇은 실을 프린지 장식하여 자유스럽고 빈티지한 느낌을 부각시켰다(Table 3).

3) 작품 III

작품 III은 네메스 디자인의 특성 중 '구성의 해체'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유로운 구성선을 활용한 작품으로, 패턴의 구성선을 따라 선택적으로 해체하거나 옷의 디테일과 장식적인 선을 따라 해체하는 크리스토퍼 네메스 특유의 믹스앤매치, 해체, 변형, 중첩 기법을 적용시킨 후 레이어링한 스위트 셔츠와 여러 벌의 폐 데님을 레이어드한 오버사이즈 와이드 데님 팬츠로 구성하였다.

상의는 폐 스위트 셔츠 안쪽에 폐 셔츠를 레이어드 한 서로 다른 소재의 믹스매치, 레이어드 형식의 봉제 기법, 스트링 장식 기법을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재킷은 앞판은 길이가 짧고 뒷판은 긴 형태이며, 소매는 드롭 숄더(drop shoulder)에 길고 넓은 소매통의 오버사이즈 형태이다. 넥라인과 커프스, 몸판 험라인에 셔츠가 레이어드 되고, 폐 셔츠에서 잘라낸 긴 스트링을 넥라인, 사이드라인, 험라인에 트리밍으로 처리하여 빈티지한 느낌을 주려고 하였다.

와이드 오버사이즈 팬츠는 색이 다른 3벌의 데님을 레이어드 한 것처럼 보이도록 봉제하고 솔기를 라이브 엷지로 처리하여 해체적 업사이클링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게 디자인하였고 이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4) 작품 IV

작품 IV는 해체적 업사이클링 패션의 특성 중 '기법의 해체'에서 영향을 받은 핸드 페인팅을 주요 기법으로 시즌이 지나도 판매되지 않은 재고 원단에 핸드 페인팅을 활용한 재킷과 팬츠로 구성함으로써, 예술적 감성이 담긴 수공예적 기법을 자주 활용했던 네메스 디자인의 특징을 반영하였다. 재킷은 절개 포인트 및 시접 라이브 엷지, 다양한 소재의 믹스매치를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

올 소재의 재고 원단으로 오버사이즈 재킷을 제작한 후, 부분적인 컷 오프로 겹감을 잘라내고 시접을 라이브 엷지로 처리하여 빈티지함을 강조하였고, 드러난 안감 부분에 팬츠와 매치되는 화이트와 핑크 컬러로 수공예 기법의 핸드 페인팅 처리를 하였다.

테이퍼드 라인의 데님 팬츠는 허리 밴드 없이 허리 부분과 햄라인을 라이브 엷지로 마감하였으며, 흰색과 핑크색의 수공예적인 핸드 페인팅 처리를 하여 재킷과 매치되도록 디자인하였다. 팬츠는 전체적으로 라이브 엷지로 해체주의적 느낌을 강조하였고 흰색과 핑크색으로 자유롭게 핸드 페인팅하여 네메스의 페인트 기법을 현대적으로 활용하였으며 Table 5에 정리하였다.

V. 결론

21세기에 접어들어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현대인은 수많은 재해와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산업에 사회적, 윤리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축산업 다음으로 높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패션산업은 환경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디자인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은 헌옷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폐플라스틱 직물을 활용하고, 친환경 염색 및 직물의 사용으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많은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들이 론칭되면서 새로운 패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는 환경적인 측면과 더불어 MZ 세대들의 다양한 취향과 욕구를 만족시킬만한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업사이클링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이미 제작된 의복을 해체 및 재조합하여 제작되는 업사이클링 디자인의 특성상, 디자이너가 창의적 디자인을 구성하는데 제약이 많아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업사이클링 패션과 해체주의 패션을 아우르는 영국의 패션디자이너 크리스토퍼 네메스의 해체주의 기법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을 분석 및 재해석하여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존과는 차별된 영감의 원천을 제공함으로써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이너가 표현방법을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개발될 수 있는 있음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크리스토퍼 네메스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크게 독특한 면의 구성을 통해 아방가르드한 형태를 보여주는 '자유로운 구성선', 작은 자투리 조각이나 폐 의류에서 떼어낸 부속품도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의류 부속품의 재활용', 포인트가 되는 색상의 스티치와 독특한 문양, 핸드 페인팅 등을 활용하는 '예술적 감성의 수공예적 기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네메스 디자인 특성은 기존 폐 의류의 빈티지한 특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고 가공을 최소화할 수 있기에, 남은 자투리 원단이 상대적으로 적고 부자재 또한 디자인의 요소와 재료로 활용할 수 있어 원단 뿐 아니라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에 있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크리스토퍼 네메스의 작품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통해 추출한 해체적 업사이클링 요소를 활용하여 남성복 상하의 세트 4벌의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개발하고 실물을 제작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패션디자이너 크리스토퍼 네메스의 디자인을 분석을 통해 추출한 해체적 업사이클링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전개함으로써 네메스의 미적특성과 창의적인 시각, 개성을 선보일 수 있는 새로운 해체적 업사이클링 디자인에 대한 방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겠다. 더불어 작품을 실물 제작하여 디자인 기법의 구현이 가능한지 실제로 확인하고 기존 업사이클링 패션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이를 청년창업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가 향후 국내의 업사이클링 패션이 의미와 창의성, 개성과 상품성 면에서 진화함으로써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자인은 네메스의 수공예적인 기법을 활용한 관계로 개인맞춤형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제작은 가능하나 대량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향후 대량생산 가능한 해체적 업사이클링 패션을 위한 디자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2. Production of Work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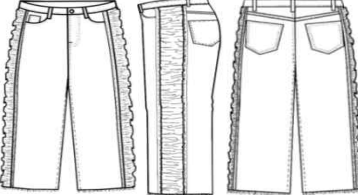

Design characteristics	Demolition of the material						
Application motif							
	Nemeth' jacket with oversized denim sleeves, 1980s or 1990s.			Nemeth' shirring skirt early piece, reworking of rags.			
	Style no.	Item	Fabric(%)	Style no.	Item	Fabric(%)	
	HJ230429	Jacket	Wool 50%, Polyester 50%	HJ230429	Pants	Cotton 100%	
	Size(cm)	Materials, color		Size(cm)	Materials, color		
		Fabric	Lining		Fabric	Lining	
Planing	Shoulder width	47			Waist width	90	
	Chest width	102			Rise length	37	
	Hem	60			Inseam	75.5	None
	Sleeve length	62.5			Hem	27	
	Armhole circum	54			Thigh circum	38.5	
	Total length	74.5	Black	Black	Hip width	68.5	Beige
					Total length	106	None
							
Work							

Table 3. Production of Work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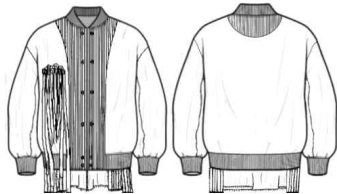


Design Characteristics	Demolition of the techniques							
Application motif	 Nemeth' judy blame button circle brooch			 Nemeth' handcrafted stitch				
	Style no.	Item	Fabric(%)	Style no.	Item	Fabric(%)		
	HJ231018	Jacket	Cotton 30%, Viscose Rayon 70%	HJ231019	Pants	Cotton 100%		
	Size(cm)	Materials, color		Size(cm)	Materials, color			
		Fabric	Lining		Fabric	Lining		
Planing	Shoulder width	48			Waist width	88		None
	Chest width	111			Rise length	36		
	Hem	46			Inseam	74		
	Sleeve length	58			Hem	22.5		
	Armhole circum	56	Black	Purple	Hip width	58	Black	None
	Total length	66.5			Total length	104		
								
Work								

Table 4. Production of Work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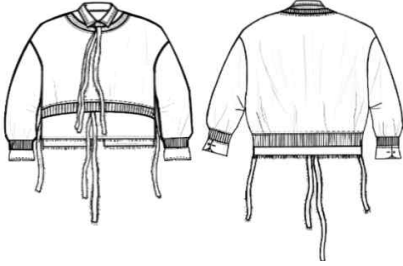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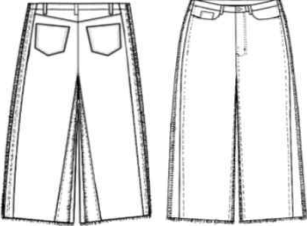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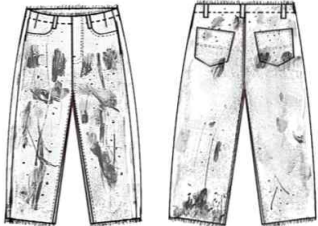

Design Characteristics		Demolition of the deconstruction						
Application motif								
	Nemeth' wooden buttons and string details		The layered pink pants early piece, reworking of rags.					
Planing	Style no.	Item	Fabric(%)		Style no.	Item	Fabric(%)	
	HJ231102	Jacket	Cotton 50%, Polyester 50%		HJ231103	Pants	Wool 100%	
	Size(cm)		Materials, color		Size(cm)		Materials, color	
			Fabric	Lining			Fabric	Lining
	Shoulder width	65			Waist width	87		None
	Chest width	120			Rise length	38		
	Hem	50			Inseam	74		
	Sleeve length	55			Hem	28.5		
	Armhole circum	50			Thigh circum	39		
	Total length	73	Gray	White	Hip width	63.5	Light blue	None
				Total length	101			
								
Work								

Table 5. Production of Work IV

Design Characteristics	Demolition of the techniques						
Application motif							
	Nemeth' archive jacket from late 1980.			Nemeth' hand painted jacket with unique vintage buttons, 1980s.			
	Style no.	Item	Fabric(%)	Style no.	Item	Fabric(%)	
	HJ231105	Jacket	Wool 50%, Cotton 50%	HJ231106	Pants	Cotton 100%	
	Size(cm)	Materials, color		Size(cm)	Materials, color		
		Fabric	Lining		Fabric	Lining	
	Shoulder width	45.5			Waist width	84	
	Chest width	114			Rise length	40	
	Hem	51			Inseam	71	
	Sleeve length	61			Hem	22	
	Armhole circum	60	Black	Black	Thigh circum	37	
Planing	Total length	65.5			Hip width	66	Blue
					Total length	101	None
							
							
Work							

References

Dokgo, Y. (2009). *A Study on David Carson's Visual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from the Deconstructivist Perspectiv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Embroidered Jacket and Fringe Pants. (2020). [Photograph]. *Tumblr*. Retrieved December 11, 2023, from <https://japanesefashionarchive.tumblr.com>

Handcrafted Stitch. (2020). [Photograph]. *Naver Blog*. Retrieved December 11, 2023, from <https://blog.naver.com/handcraftedstitch>

- trieved December 11, 2023, from <https://blog.naver.com/vhtm4730/222215510579>
- Heo, J. (2020). Upcycling shirt design with deconstructionist idea method.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21(5), 655-668. doi: 10.47294/KSBDA.21.5.47
- Jeon, Y., & Park, S. (2021).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upcycling fashion: Focusing on the deconstructive perspective. *The Korea Society of Craft*, 24(4), 167-193.
- Kim, J., & Park, E. (2022). A study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neo-deconstructivism Fashion: Comparison of Vetements and Marques'Almeid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22(1), 39-58. doi: 10.18652/2022.22.1.3
- Kim Jones 2015 F/W Louis Vuitton Men's Collection. (n.d.). [Photograph]. *Vogue Runway*. Retrieved November 6, 2023,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5-menswear/louis-vuitton/slideshow/collection#9>
- Kim, S., & Ha, J. (2016). A study on aesthetic values of neo deconstructive fashion: Focused on Vetements, Marques'Almeida, Jacquemu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6(4), 129-150. doi: 10.18652/2016.16.4.8
- Kim, E. (2001). *A study for the collage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deconstructive space composi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Lee, K. (2016, March 11). 마르지엘라의 후예들 [Descendants of Margiela]. *W Korea*. Retrieved September 1, 2023, from <https://www.wkorea.com/2016/03/11/%EB%A7%88%EB%A5%B4%EC%A7%80%EC%97%98%EB%9D%BC%EC%9D%98-%ED%9B%84%EC%98%88%EB%93%A4>
- Lim, H., & Choi, J. (2005).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ography style of expression from deconstructionist point of view. *Journal of Art & Design Research*, 8(1), 107-124.
- Lorelei, M. (2015, June 11). Louis Vuitton celebrates Christopher Nemeth collection. *WWD*. Retrieved July 6, 2023, from <https://wwd.com/eye/parties/louis-vuitton-christopher-nemeth-kim-jones-naomi-campbell-lindsay-lohan-judy-blame-1014830>
- Mohair Jacket with Non-matching Found Buttons. (2020). [Photograph]. *Tumblr*. Retrieved December 11, 2023, from <https://japanesefashionarchive.tumblr.com>
- Moon, H., Jung, K., & Bae, S. (2021). Analysis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Christopher Nemeth a leading fashion designer. *Journal of human ecology*, 31, 21-35.
- Na, M., Kim, J., & Lee, J. (2024). Icon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deconstructive upcycling fashion of Maison Margiel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74(2), 25-42. doi: 10.7233/ksc.2024.74.2.025
- Nemeth' Patchwork and a Button-decorated Jacket. (2021). [Photograph]. *Naver Blog*. Retrieved December 11, 2023, from <https://blog.naver.com/vhtm4730/222215510579>
- Park, J., & Kim, H. (2016). Development of upcycled fashion design using leather waste.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17(3), 189-205.
- Rope Pattern Three Piece Linen Suit. (2020). [Photograph]. *Tumblr*. Retrieved December 11, 2023, from <https://japanesefashionarchive.tumblr.com>
- Shin, M., & Lee, J. (2020). Semantic analysis on change of deconstructive fashion design from a semiotic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20(4), 113-129. doi: 10.18652/2020.20.4.7
- Wooden Buttons and String Details. (2023). [Photograph]. *Alchetron*. Retrieved December 30, 2023, from <https://alchetron.com/Christopher-Nemeth>
- Wu, Y. (2021).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of Maison Margiela from the neo-deconstruction perspectiv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M., & Park, S. (2008). The study of hair style applied of the intertextuality on deconstructive meaning. *Journal of Beauty Art Management*, 2(1), 5-16.

Received (March 24, 2024)

Revised (April 16, 2024; May 6, 2024; June 17, 2024)

Accepted (July 16, 2024)